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원장>

일어서 그라

마지막 발기의 추억이 가물가물한 할아버지가 어찌어찌 구한 비아그라를 먹고 실로 오랜만에 '재기'에 성공했다. 바람결에 촛불이 꺼질세라 손으로 가리듯이 괴음을 부여잡고 단숨에 뛰쳐나간 할아버지, 어찌어찌 젊은 여자와 함께 운우의 정을 나누었다. 잊혀졌던 숨막힐듯한 쾌감을 만끽하고 한숨 돌리는 순간 아직도 죽지 않은 아랫도리가 멀뚱히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진도 8.0에 벼금갈 만한 그 강렬한 감격과 충격을 이기지 못한 할아버지는 그만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시신을 입관할 제, 봉령(棒齡) 70이 넘고 지금은 사자(死者)의 부품인 주제에 여전히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할아버지의 물건 때문에 도무지 판 뚜껑이 닫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시신을 훼손할 수도 없어 난감해 하는 가족들에게 누가 한가지 꾀를 냈다. 옳거니, 그 가능성을 인정한 가족들은 재빨리 할머니를 모셔왔고,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 손 인사라도 하라고 둘러 대며 슬그머니 할아버지의 물건을 만지게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을

찌르듯 당당하던 할아버지의 물건이 스르륵 기운이 빠져 무사히 시신을 입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아그라의 위용과 남·오용의 폐해를 과장하여 만든 우스갯 소리다. 현재 '저절로 서기'나 '비벼 세우기'가 어려운 남자들의 의학적 해결책은 '빨아 세우기' (진공 발기법), '찔러 세우기' (해면체내 자가 주사법), '심어 세우기' (음경 보형 수술)다.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 수단들은 저절로 일어서는 생리적 발기만큼 자연스럽지 않다. 강제로 빨아 세우면 사정의 쾌감을 방해하고 또한 사용이 번거롭다. 심어 세우기는 기계적 고장 가능성과 수술 자체에 의한 육체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찔러 세우기는 매번 직접 주사를 해야하고 약물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우는 방법은 없을까? 한두알의 약물을 복용하기만 하면 금새 고분고분해지는 묘약은 없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비약(?)이 바로 비아그라다.

혜성처럼 나타난 비약, 비아그라

비아그라는 발기의 핵심 물질인 사

이클릭 지엠피(cyclic GMP) 분해를 방해하여 사이클릭 지엠피의 생물학적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페니스의 위용을 만들어 준다. 남자가 성적 자극을 받으면 그 메시지는 유선 통신망을 통해 발기근육세포와 페니스 혈관의 내피세포에 전달된다. 이들 세포 내에서는 정보분석 과정을 거쳐 사이클릭 지엠피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이 발기 기동을 확장시켜 페니스 내부로 혈액을 유인, 유폐함으로써 발기되기 때문이다. 사이클릭 지엠피가 페니스 발기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비아그라는 영국 샌드위치에 있는 화이자연구소에서 가슴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막힌 혈관을 개통,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페니스가 발기되는 것을 관찰하여 태어난 약물이다. 연구원들은 즉시 발기부전 증 남성 4백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통해 발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경구용 내복약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한 바 플라시보(위약) 투여그룹보다 비아그라투여그룹에서 탁월한 발기효과를 확인하여 주저앉은 남성들에게 낭보를 전하게 된 것이다.

혜성처럼 나타난 요술쟁이 비약 '비아그라'는 수많은 발기부전 남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비아그라로 재기에 성공한 어느 할아버지가 갑격을 이기지 못해 저 세상으로 떠난 사례는 또 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비아그라의 오·남용이 걱정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거나 잘못쓰면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비아그라의 국내 시판 규정은 심혈관 질환이 없다는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는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1회에 2정까지 판매토록 제한하고 있다.

비아그라의 오·남용이 없어야 하겠다.

이 소문난 약의 약국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혈관 질환이 없다는 진단서 원본을 약국에 제출하는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구입량에도 제한을 두어 1인당 1회에 2정, 한 달에 8정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물의 남·오용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쩐지 최상(?)의 미봉책에 불과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오·남용 등 부작용이 문제

비아그라는 물론 홀륭한 약이다. 피임약 이후 최대의 발명품이란 찬사도 과장만은 아니다. 존재의 이유 가운데 소중한 것 하나를 잃은 수많은 발기부전 남성에게 새로운 삶을 다지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약청은 최소한 '먹어도 죽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정력에 좋다면 바퀴벌레까지 집어삼키는 화려

한 전파(?)를 숨길 수 없는 남성네들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식약청의 비아그라 판매 방식은 아무래도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적으로 멀쩡한 남자도 간혹 발기부전이라는 당혹을 경험한다. 한참 잘 나가던 시절,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벌떡벌떡 일어나 소리 없이 마구 외치며 들쑤시던 그 문제아가 어느 날 고집스럽게 웅크리고 앉아 도통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한 변덕이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현시 하는 페니스는 스위치를 누르면 금새 작동되는 피동의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번의 직무유기를 아주 망가진 폐물로 체념할 것까지는 없다. 그야말로 일과성 발기부전증(situational impotence)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응석부리는 페니스를 잘 어르고 다독여 주면 다시 예전의 고분고분한 성질을 되찾을 수 있다. 뭐니뭐니해도 최고의 명품은 역시 우직한 성질의 페니스다. 하지만 만성적인 태업이나 파업은 남자를 긴장케한다. 무마(撫摩)나 선무도 아무 쓸모가 없

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그것은 곧 남성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기 기동의 물리적 상태와 발기 세포의 화학적 성상(性狀) 그리고 개체의 제반 환경이 페니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페니스는 페니스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한다. 시상하부-뇌하수체-고환 축(軸)에서 이와 같은 내분비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페니스에 정보를 전달하고 발기 및 이완을 명령하는 메시지는 신경이라는 유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기 메시지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통해 전달되며 이와 같은 정보 전달체계는 적합한 내분비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명령을 받은 페니스는 혈액이 유입되는 페니스 입구를 활짝 열어 발기 기동 내부로 다량의 혈액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페니스의 혈액 배출구를 폐쇄시켜 90mmHg 이상의 압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발기라는 경이로운 변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아그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다. 만능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